2026.10.15.
19:30 (THU)

서큘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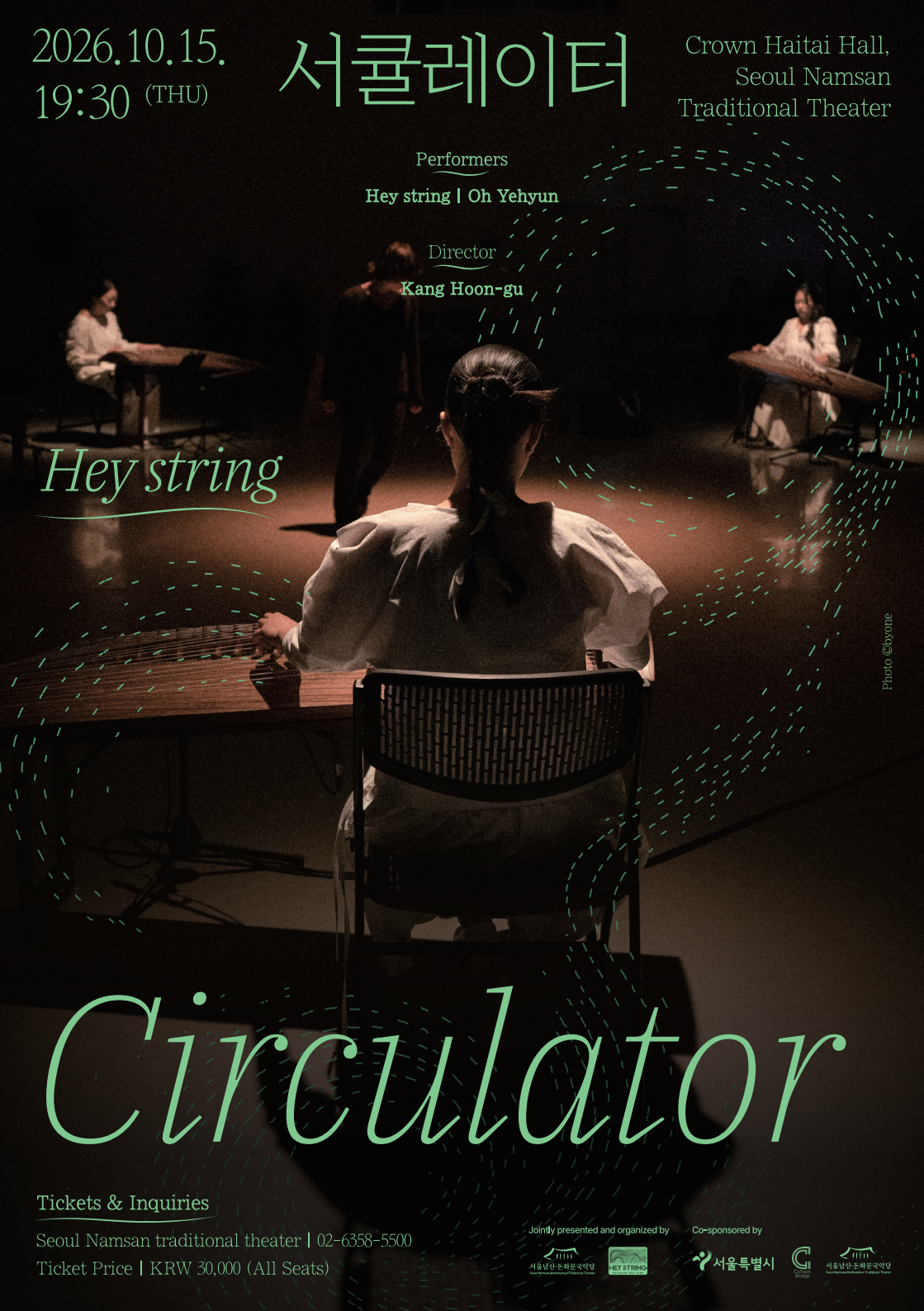
Crown Haitai Hall,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Performers

Hey string | Oh Yehyun

Director

Kang Hoon-gu



Hey string

Photo ©byone

Circulator

Tickets & Inquiries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 02-6358-5500

Ticket Price | KRW 30,000 (All Seats)

Jointly presented and organized by

서울남산국악당 Seoul Namsan Gugakdang Traditional Theater

HEY STRING

Co-sponsored by

서울특별시

Culture Bridge

서울남산국악당 Seoul Namsan Gugakdang Traditional Theater



Hey string

일상에서 우리가 사유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일상과 다른 시간은 언제 생겨날까.

자연을 감각할 때, 우리는 삶 또한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상을 떠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사유하게 된다. 하지만 자연과
유리되어 있는 도시의 생활은 우리에게서 사유의 순간을 앗아간다.
아주 가끔씩 사유의 순간이 돌아온다.

물과 불, 바람과 흙- 자연을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요소인, 4원소를
일상에서 새롭게 마주할 때, 억압되었던 사유의 리듬이 활성화된다.

설거지하다가 개수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다가,
물이 끓는 소리를 들을 때, 창밖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을 맞을 때,
촛불의 속을 찬찬히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사유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우리는 어느덧 자연이 소거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당신의 사유의 리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음악을 준비했다.
그리고 4원소를 가져왔다.

우리는 최소한의 4원소 배치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당신의 사유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아티스트 Artist

Hey String은 전통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가야금 중심의 앙상블을 통해 전통 주법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오지현, 김지효, 박지현 3인의 멤버는 리듬과 공백, 현과 나무 울림을 활용해 한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또한 국내외 무대와 다양한 예술 분야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 Program

순번	프로그램	소요시간
1	공기	05:20
2	꿈	10:00
3	불	05:00
4	물	05:30
5	흙	07:30
6	걷기, 달리기	07:30
7	사유의 리듬	08:00

2026 서울남산국악당 공동기획

서큘레이터